



기아, 신형 'K8' 실내 디자인 공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눈길

기아가 신형 준대형 세단 'K8'의 실내 디자인(사진)을 4일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아차 K8에 최초로 적용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Panoramic Curved Display)'다. 계기판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이어지는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최근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트렌드다. K8은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두 개로 구성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더욱 미래 지향적인 실내 이미지를 완성했다. 운전석에 최적화된 곡률을 적용해 운전자의 시선이동을 최소화해 안전한 주행을 돕는다.

운전자의 전방 시인성과 실내 개방감을 대폭 높인 것도 새로운 변화다. K8은 대시보드 높이를 약 20mm 낮추고 좌·우 A필러 각도와 룸 미러 모듈의 크기를 최적화했으며, 아웃사이드 미러 접합부를 창문에서 문으로 내리고 그 자리에는 삼각 창(멜타 글라스)을 추가해 더욱 탁 트인 시야를 완성했다.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공간을 더욱 넓고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한 것도 새로운 시도다. 원목 느낌을 그레인 장식을 전면부에서 등석식 문까지 1열을 감싸듯 길게 이어 실내 공간이 넓어 보이도록 했고, 조수석 앞쪽 중앙부와 1열 양 쪽 문에 다이아몬드 패턴과 무드 조명을 더해 외관에서 이어지는 '스타 클라우드 라이팅'을 완성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공조 시스템을 통합해 조작할 수 있는 터치 방식의 전환 조작계도 최초로 적용했다. 중앙에 위치한 버튼으로 두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이다.

이외에도 기아 최초로 적용하는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14스피커), 알루미늄 소재의 신규 기아 엠블럼을 적용한 스티어링 휠 등을 통해 경쟁 모델과 차별화했다.

원성열 기자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중앙대 석좌교수 부임



민병철 생활영어'로 유명한 민병철(사진)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이 3월 학기부터 중앙대 경영학부 석좌교수로 부임해 강의를 한다. 민 교수는 건국대와 한양대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적 창업'을 10년 간 강의해왔는데 이번 학기에는 '디지털 도입을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를 주제로 가르칠 계획이다.

'민병철 생활영어'로 유명한 민병철(사진)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이 3월 학기부터 중앙대 경영학부 석좌교수로 부임해 강의를 한다. 민 교수는 건국대와 한양대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적 창업'을 10년 간 강의해왔는데 이번 학기에는 '디지털 도입을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를 주제로 가르칠 계획이다.

비즈 포커스 | 이베이코리아, 이달 중순 예비입찰...누구 품에 안길까?

카카오·신세계·롯데 유력 후보 급부상

e커머스 시장 판도 바꿀 인수전 카카오, 네이버와 경쟁 위해 필요 신세계 인수편 거래규모 2위 부상 롯데, 롯데온 성장 위해 투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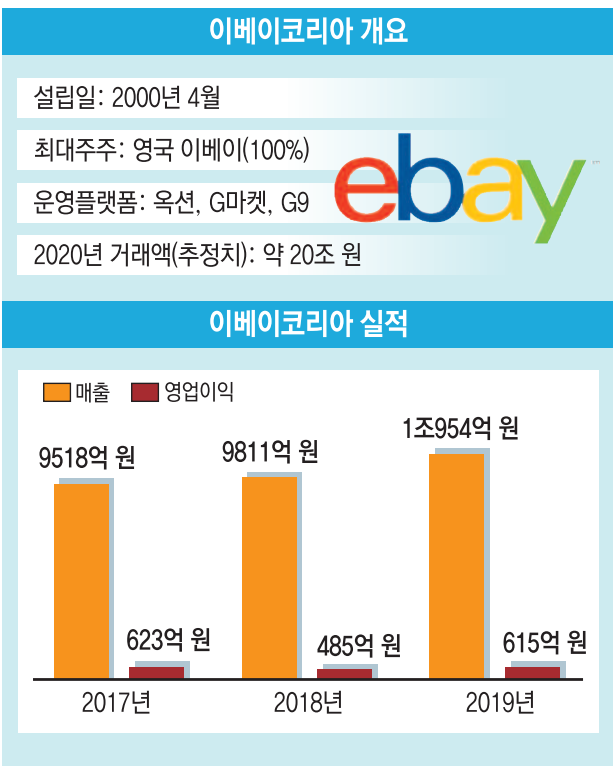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예비입찰을 앞둔 가운데, 유통 대기업부터 플랫폼 사업자, 사모펀드까지 다양한 인수 후보군들이 투자 설명서를 받아갔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강자인 카카오와 유통공룡 신세계, 롯데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떠오르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베이는 한국법인을 통해 G마켓과 옥션, G9 등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2001년 옥션을 인수하며 국내 시장에 발을 들였고, 2009년에는 G마켓을 사들이며 업계 1위로 부상했다. 네이버 쇼핑 부문과 쿠팡의 성장으로 현재는 거래액 기준 3위로 내려앉았지만,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전문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알짜 기업이다. 2019년에도 영업이익 615억 원을 기록하며 15년 연속 흑자를 냈다.

카카오와 신세계, 롯데가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면 국내 e커머스 시장의 판도가 바뀔 전망이다. 예상 매각 금액은 약 5조 원으로 비교적 높지만, 카카오나 신세계, 롯데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다.

최근 커머스 분야에서도 영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는 카카오는 최대 맞수인 네이버와의 경쟁을 위해 이베이가 필요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인수 건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



혔다. 카카오의 커머스 사업은 자회사 카카오커머스가 담당하고 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선물하기가 주력이고, 주문생산물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도 운영 중이다. 시장에선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연 거래액을 약 3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네이버의 약 27조 원을 넘보기에는 힘에 부친다. 카카오가 거래액 약 20조 원에 달하는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면 단숨에 쿠팡(약 21조 원)을 넘어 네이버를 턱밑까지 추격할 수 있다. 이베이코리아의 상품 소싱 노하우에 카카오톡의 플랫폼 영향력을 더할 경우 적지 않은 시너지도 기대된다.

●신세계·롯데 등 유통공룡도 관심

신세계와 롯데 등 유통 대기업의 참여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양사 모두 "이베이코리아 투자 설명서를 받은 것은 맞지만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미래 먹거리로 그룹 통합 온라인몰 SSG닷컴을 키우고 있는 신세계의 관심이 높다. 지난해 SSG닷컴의 거래액은 3조9000억 원 규모로 라이벌 롯데온(7조6000억 원)의 절반 수준이자 네이버와 쿠팡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하지만 이베이코리아를 품에 안으면 거래액이 24조 원 규모가 돼 단숨에 네이버에 이은 2위로 올라설 수 있다. SSG닷컴은 지난해 상품 구성 강화를 위해 오픈마켓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강화석 이마트 대표가 SSG닷컴 대표를 겸임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오픈마켓 모델을 고심했던 만큼 오픈마켓 사업자의 대표적인 이베이코리아 인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롯데의 경우 지난해 7% 성장에 그치며 부진한 롯데온을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 전문가 영입과 함께 이베이코리아 인수라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거 티몬이 매물로 나왔을 때 인수를 검토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인수전 참여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

대형마트 홀플러스를 소유하고 있는 MBK파트너스의 인수 가능성도 있다. 오프라인 매장 기반인 홀플러스가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해 온·오프라인 연계를 노릴 수 있다. 특히 홀플러스의 오프라인 물류망에 오픈마켓 플랫폼을 덧붙일 경우 온라인 식품시장에서 막강한 파괴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코나EV 리콜 비용, 현대차-LG엔솔 3:7 분담 합의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1조 원 규모의 코나EV 등 전기차 배터리 리콜 비용의 분담 비율에 대해 4일 합의했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분담비율은 3:7이다. 현대차가 30%를, LG에너지솔루션이 70%를 분담한다.

현대차는 지난달 24일 1조 원 규모의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총 8만1701대의 전기차 배터리를 전량 교체하는 자발적 리콜을 단행했고, 1조 원의 리콜비용 전액을 2020년 4분기 경영실적에 반영했다.

국내 리콜 대상은 코나EV(OS EV) 2만5083대, 아이오닉EV(AE PE EV) 1314대, 전기버스 일렉시티(LK EV) 302대 등 2만6699대이며, 해외 리콜 예정대수는 코나EV 5만597대, 아이오닉 4402대, 일렉시티 3대 등 5만5002대다.



코나 EV 전기차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까지 1조 원으로 추산되는 리콜 비용 분담 비율에 대한 협상을 지속해왔다. 국토부가 발표한 화재 원인 결과와 두고 이견이 있기도 했지만, 양사는 고객 불편 및 시장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해 리콜 비용 분담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지고

다. 양사는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리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객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권광석 우리은행장 임기 1년 연장 자추위, 올해 경영성과 회복 특명



권광석 우리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1년 더 우리은행을 이끈다. 우리금융은 4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개최하고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로 권광석 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권 행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대내·외 금융환경 속에서도 조직 안정과 내실을 기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지난해 경영성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올해의 경영성과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권 행장의 임기를 1년 연장했다"고 했다. 권 행장은 5월 우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의사결정을 거쳐 최종 후보로 추천된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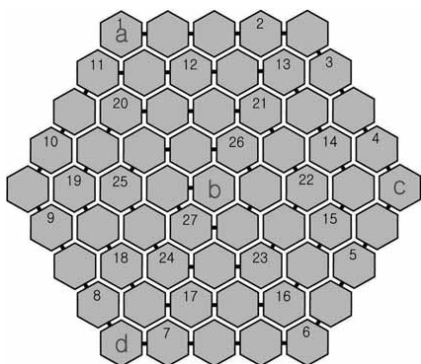
		5	9		8		
	9		7	4		5	
7			2		8		9
	8	6			7	9	
9							6
	4	3			2	8	
3			8		9		1
	1		5		2		7
		8		1		9	

		4	7	6		9	
7	3				2		4
			5		4		
	9	3				6	7
5							4
4	8					2	5
			2		1		
8	2		3				7
		5		7	8	1	

■ 스도쿠정답

8	2	6	7	1	9	8	9
9	7	3	2	8	5	6	1
1	9	5	6	7	8	2	4
9	8	2	9	4	6	7	1
7	6	1	9	8	7	1	2
7	6	1	9	8	2	1	9
6	1	9	8	5	2	7	4
2	5	7	9	1	1	6	8
4	7	8	1	6	8	9	9
6	2	1	8	7	9	5	7
9	7	3	6	9	8	1	2
8	9	5	1	7	2	9	4
8	9	5	1	7	2	9	4
1	9	5	6	7	8	9	7
7	6	1	9	8	2	1	9
2	5	7	9	1	1	6	8
4	7	8	1	6	8	9	9

■ 낱말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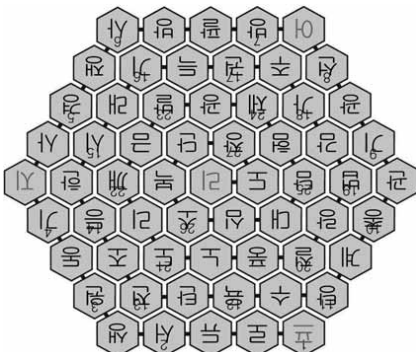
01.영화, 방송 등에서 제작의 모든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 02.취를 의인화해 부르는 말. 03.자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 동력원이 되는 장치. 04.죽을 지경에 이룸. 05.앞서려고 다투는 회사. 06.모든 방법.

07.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쳐 놓은 진지를 잇는 선. 08.종류가 다른 광물을 분류하는 장치. 09.자동으로 탄알을 장전하며 발사하는 소구경의 화기. 10.파를 넣고 끓인 닭국. 11.고기 튀김에 달콤한 소스를 부은 중화 요리. 12.적진에 돌진 육박해 싸우는 전투. 13.자동차 따위의 앞에 단 등. 14.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김. 15.배추의 잎이나 무청을 말린 것. 16.특정한 법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17.술을 권하며 부르는 노래. 18.더하고 빼는 법. 19.사람·동물의 이의 겹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 20.빠르게 부는 바람과 소용돌이치는 물결. 21.곡식의 낱알을 떠는 농구의 하나. 22.발뒤꿈치에 들어 올림. 23.제 몸에서 뱃

을 내는 물체. 24.몸소 겪은 것에 대한 이야기. 25.담력은 크게 가지되 주의는 세심해야 함을 이르는 말. 26.흰옷을 입고 땀이 끼게 몸을 꾸밈. 27.못을 박거나 빼는 데 쓰는 연장.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문 다음 a~d칸을 이어 놓으면 꽃 이름이 됩니다.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